



내가행복한 곳

자치단위!

2003년 3월
자치단위 소개집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생활 도서관
씨네마 떼끄
이화여성위원회
게릴라 언론 야!

자치단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치단위는 내가 원하는 곳입니다.

자치단위는 내가 행복한 곳입니다.

이화의 자치단위는 진정한 '자치'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곳입니다. 자치는 먼 곳에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행동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화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치'의 실현을 꿈꾸는 새내기, 현내기를 기다립니다.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학생문화관 219호/3277-4712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생활 도서관 학생문화관 242호.3277-4709

씨네마 뽕 학생문화관 343호(조용은행쪽 계단으로)
/3277-4710

이화여성위원회 학생문화관 218호/3277-4708

게릴라 언론 아 학생문화관 4층

“

변태

소녀들의 세계”

여러 분을

초대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성애자였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성을 보고 끌리기 시작했는가?
내가 이성을 좋아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내가 이성애자인 이유가 정신병적 징후와 관련이 있는가?
나는 언제부터 이성애자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가?

당신이 만약 이성애자라고 생각한다면 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위의 질문의 이성/이성애자를 동성/동성애자로 바꾼다면, 이것은 대답 가능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의 질문은 동성애자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동성애가 왜 발생하는가를 궁금해합니다. 그에 관한 이론이나 의견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성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의 원인도 명확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성 정체성은 어떤 하나의 사건, 혹은 신체적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질문들은 동성애를 일탈행동, 혹은 병리학적 징후로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설마 아직도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퍼뜨리고 다니는 변태 성욕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면 당신은 스스로가 너무나 진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동성애자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동성애자는 난잡한 성행위를 일삼는 변태 성욕자들이 아닙니다. 이성을 만나 사랑하

고 섹스하는 동일한 과정을 동성과 함께 하는 것뿐이며, 그 과정에서 에이즈 같은 질병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일부일 뿐이죠.
또한 동성애자는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동성애자는 존재하고 있으며, 선천적이든 아니든 억압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이하 변날)는 이러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단위입니다. 2001년 여름에 결성되었고, 이듬해 3월에 정식 자치단위로 인준 받았습니다. 현재 대학 내 이반 모임 중 서울대 마음 005에 이어 두 번째로 정식 동아리 인준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일한 레즈비언 모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날은 오프라인 상의 스터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날의 활동은 크게 내부활동과 외부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활동으로는 정기 회의와 세미나 진행,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등이 있고, 외부활동으로는 다양한 학내 선전 작업을 비롯, 외부 단위들과의 다양한 연대활동 등이 있습니다.

변날의 활동에 질문이 있거나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공식 이메일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가입목적,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변태'라 치부되는 레즈비언들의 유쾌한 반란, 우리에게 육아매진 모든 밋줄을 끊어내고, 훨 훨 날아갈 그 날까지.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공식e-mail; flyinggurl2001@yahoo.co.kr

학생문화관 219호, (tel; 3277-4712)



※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방문은 사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리 연락 후 약속시간에 방문해 주십시오.

이 화의 일원이 되신 새내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4년의 대학생활동안 하고 싶은 일들.. 너무 많으시죠?

모든 일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결정하고, 또 만들어 나갈 기회가 주어지는 이화인으로서의 시간. 생활도서관은 그 시간들을 더욱 행복하게 해 줄 이화의 자치단위입니다.

이화에는 두 곳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중앙도서관과는 달리 이 곳 생활도서관은 이화인들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학생들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화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곳은 시험공부나 취업공부를 하기 위한 자습실이 아닌, 책을 읽기 위한 공간입니다.

생활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이화의 학생들이 스스로 선정한, 이화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담겨있는 책들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권 한권 모두 이화인들과의 교감을 위해 정성껏 선택한 도서들이 모여있습니다.

한겨레21, 씨네를 비롯해 여성, 역사, 사회,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정간물들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간도 2주마다 구입되므로 중앙도서관보다 빠르고 신간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도서전을 통해 직접 정한 테마에 맞춘 도서들을 선정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독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서평경연대회와 같은 기획을 통해 이화인들과의 소통을 시도하며, 지속된 교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평경연대회는 다른 학교의 생활-자치도서관들과 연합으로 기획되어 내부만의 소통이 아닌 외부로도 연결되는 목소리를 만듭니다.

이화의 생활도서관은 살아 움직이는 지식과 정보의 유통지가 되어야 할 도서관이,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습실 혹은 독서실로 변질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설립된 곳입니다. 기존 도서관의 경직된 이미지를 파괴하고 이화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문턱없는 열린 도서관을 직접 운영해 나가면서, 나아가 이화인들과의 교감을 통해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것이 이화의 생활도서관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생활도서관이용안내

***생활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입니다.**

그러나 개인과제 및 어학, 전공공부는 금합니다. 단 시험기간에는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도서관은 어디에 있죠?**

학생문화관 242호에 위치합니다. 조흥은행 옆 계단을 올라오거나 학생처에서 구름다리를 건너면 보인됩니다.

***도서 대출에 대해 궁금하세요?**

신분증을 맡기고 대출장을 기록하시면 1주일에 3권까지 대출할 수 있고 연체는 1일 50원입니다.

***생활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고 싶으세요?**

생활도서관 수습위원은 3월과 9월에 모집합니다. 3월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9월에는 1학년들만 받습니다. 생활도서관의 운영뿐만 아니라 행사도 직접 기획하고 운영위원들과의 끈끈한(?) 정을 느껴보고 싶은 이화인이면 누구나 수습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강시간에 생활도서관으로 오세요.**

개관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단 열람은 사서가 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 3277 - 4709

영화..

루이 루미에르가 <열차의 도착 1895>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해서 상영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래 영화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으며 변모해 왔다. 이제는 바야흐로 디지털의 시대'의 도래로 가벼운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찍고 편집하며 혼자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는 것이다.

2003년 대한민국..

우리의 영화들과 영화 문화는 어떠할까.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는 멀티플렉스 영화관들과 대학마다 들어서고 있는 영화 관련 학과,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만해도 125편이다. 세계의 많은 영화제에서 자주 수상소식을 전해 듣고 있고, 이제 영화제와 더불어 세계시장에 나서려는 야심(?)을 품고 있을 것이다. 우리 영화들은..

시네마페끄 프랑세즈..

100년의 영화사 속에서 도약을 이루었던 1960년대 누벨바그 감독들, 그 무서운 아이들 (enfant terrible)은 자신들의 영화의 시작은 언제나 시네마페끄 프랑세즈라는 영화관이라고 말해 왔다. 영화 박물관이기도 했던 그곳은 필름들을 보전하고 많은 무명 영화 작가의 영화를 알렸으며 전세계 영화광들의 은신처가 되어왔다.

영화관..

그곳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완전히 혼자만의 공간인 동시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 공간. 나를 잊는 공간이기도 하고 나를 자각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영화관은 지극히 닫혀있는 공간이지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내 안에서 새로운 어떤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나를 소비해 버리기도 한다. 영화관에서. 그곳에서 어떤 영화와 어떤 나는 충돌하여 서로 밀고 당긴다.

..그리고, 영화 시네마페끄

이화 시네마페끄는 몇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소박하게는 영화관으로서 관객들이 영화를 말 그대로 재미있게 보고 갔으면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영화를 보여주는 곳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 "아~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와 좀 다른 영화도 있구나!"하는 재미를 관객이 느꼈으면 - 하는 것이지요.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영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한편의 영화를 열 명의 관객이 보면, 열 편 아니 백 편의 영화가 각각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정말 재미있고 신나잖아요!

이화 시네마페끄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눈치채셨죠? 이화 시네마페끄는 여러분의 학생문화관 3층에 위치한 영화관입니다. 1994년 전설의 가정관 쌀창고에서 개관한 이래 쉬지않고 영화를 틀어 오고 있지요. 시뎐에서는 개봉관이나 비디오샵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1학기의 일정을 살짝 공개하자면~~

1월~2월 : 계절학기 상영- 계절학기와 학기중의 깜짝! 7시영화제에서는 최신 개봉영화를 주로 상영하지요..

3월~6월 : 상시상영- 매주 하나의 주제를 통해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합니다.(월-금,일2회)
03-1학기에는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전/ 디즈니 애니메이션100년 / 실내극 영화/ 짐 자무쉬 감독전..."등을 준비하고 있구요, 3월 마지막 주에는 여성위원회와 함께하는 페미니즘영화제를 열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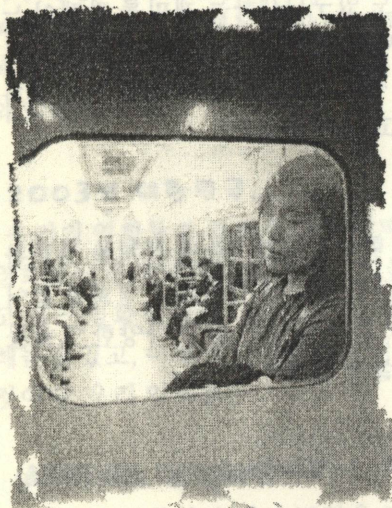
이화 시네마페끄는 이화인에 의해 운영됩니다

시네마페끄는 자치단위입니다. 이화인의 학생회비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위원 역시 이화인입니다. 운영위원은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면접을 통해 3월 말 선발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모든 이화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화 오픈 세미나'등의 활동도 계획하고 있지요.

시네마페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 ^^

www.nkino.com/club/cithe
학생문화관 343호 / tel. 3277-4710

제 8대 여성위원회



안녕하세요 03학번 이화인 여러분~ 이화 여성위원회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여대 가서 뭐하나 남자 없으면 재미없지.", "그래 시집이나 잘 가라.", "남자는 서울대 여자는 이대지."

"이대 애들이 얼마나 독하고 이기적인 줄 알아?", "명품 살려면 돈 좀 들겠다" 축하와 걱정을 가장한 욕들.. 이보다 심한 것도 많이 들으셨겠죠.

그러나 이러한 폭력들, 왜 이화일까요?

그 이유는 이화가 여성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많은 남성들에게 여성이 여성의 문화를 만들고 여성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곳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공간이겠죠.

'남편 수준을 맞추기 위해 교육받는 여성', '사치가 심하고 이기적인 여성', '남자가 있어야 비로소 완전해 지는 여성'..

이대를 향한 시선은 여성을 향한 사회의 보편적인 시선과 다름없어요.

그동안 이러한 시선은 여러 사건들로 구체화됐어요.

십 년이 넘게 이화의 축제 때마다 찾아와 이대는 우리 것이라며 난동을 부렸던 고대생 집단 성폭력, 추위로 인해 움츠려있던 물건을 세우고 싶다는 한양대 단체 미팅 제안 편지, 선정적인 포즈에 '우리 미팅하자' 에 '좋아요 오빠'라는 말풍선을 단 서울

대 단체 미팅 제안 엽서. 여대에 공대가 있는 건 자원 낭비라는 연세대 게시판, 군 가산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여성이 이야기하자마자 남성문화가 가하는 사이버 테러,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쏟아지는 걱정(-.)들.

여성위원회는 이러한 억압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여성위원회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사건들을 공론화 시키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열리고 있는 페미니즘 문화제에서는 여성의 시각으로 문화를 바라보기도, 여성의 몸에 대한 편견들을 되짚어 보기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성매매를 욕하기도, 여성에게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 지를 고민하기도 한답니다. 그밖에도 여성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와 학교의 반성폭력 학칙 개정에도 여성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답답하시나요?

여성임을 포기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럼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다.

이화 여성위원회로 찾아오세요!

#여성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반대하며 피해자를 지지합니다.

사건의 해결, 여성위원회와 함께 해요.

#3월 마지막 주 제 8회 페미니즘 문화제에 함께 할 꼬마마녀를 모집합니다.

#학생문화관 218호

(02)3277-4708

#ewhalovewom@hanmail.net